

## 울산상의, 석유화학기업 지원

울산상공회의소는 3월30일 울산 석유화학단지 공장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상의는 최근 리비아 사태와 일본 지진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기업들의 애로를 파악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석유화학기업의 애로 타개책으로 5월에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태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유엔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날 최일학 회장과 차의환 상근부회장이 회원기업 현장 간담회 행사의 하나로 LS니꼬동제련을 방문해 김영훈 소장과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애로를 청취했다.

<화학저널 2011/03/31>